

불모지 육상서 '동양인 벽'이 깨진다



우상혁 (왼쪽) / 수빙텐 (오른쪽)



우상혁 높이뛰기 한국신기록 세우며 '세계 4위' '아시아 볼트' 수빙텐 아시아 첫 100m 메달 도전 일본 남자육상 400m 계주 저력 보이며 결선행

2020도쿄올림픽육상에서 '동양인의 벽'이 깨지고 있다. 육상은 신체 조건상 동양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다. 많은 올림픽 종목에서 세계적인 동양인 스타가 탄생했지만, 육상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110m 허들에서 나온 '황색탄환' 류시양의 금메달은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기억 깊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한·중·일이 잇달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높이뛰기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

이 도쿄 올림픽스타디움 하늘을 날며 '깜짝 4위'로 주목을 받았다. 우상혁은 1일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뛰어 올라 자신의 최고기록인 2m31을 넘어, 이전까지 보유한 한국 신기록(2m34)까지 갈아치웠다. 한국의 올림픽 결선 진출도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전이후 25년 만의 쾌거였다. 우상혁은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순위권에서 경쟁한 유일한 동양인이기도 하다. LA 대회에서 2m39로 동양인 최고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지안후아가 동메달을 가져갔고, 7·8위에도 중국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상혁이 필드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을 때 트랙에서는 '아시아 볼트' 수빙텐(32·중국)이 역사적인 질주를 펼쳤다. 그는 육상 남자 100m 준결선에서 9초 83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조 1위는 물론 준결선을 뚫지 못한 23명 중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동양인의 벽'을 깬 기록이기도 했다. 9초90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지만 수빙텐은 9초83으로 아시아 기록 9초91을 0.03초 단축했다. 사실 앞선 아시아 기록 보유자는 나이지리아 태생의 귀화 선수 페미 오구노데(카타르)로 순수 동양인 기록은 아니다. 수빙텐은 결선 레이스에서는 9초98로 6위에 그쳤지만 의미 있는 올림픽을 장식했다. 일본은 남자 400m 계주에서 연달아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5일 열린 400m 계주 예선 1조에서

38.16초를 기록하며 예선 1조 3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육상 강국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일본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400m 계주에서 아시아 최초 동메달의 위업을 이뤘다. 이어 2016년에는 아시아 최초 육상 은메달까지 따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선에 진출하면서 '동양인 벽'을 허물었다. 한편 '계주훈련'에 집중한 중국도 이날 예선 2조 경기에서 37초92를 기록하며 예선 2조 1위, 전체 2위로 결선에 올라 동양인의 영역을 확장했다. 반면 '우승후보' 미국 육상 남자 400m 계주팀은 이날 2조 6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충격의 예선 탈락을 경험했다. 일본과 중국은 6일 오후 10시 50분 세계를 놀라게 할 마지막 질주를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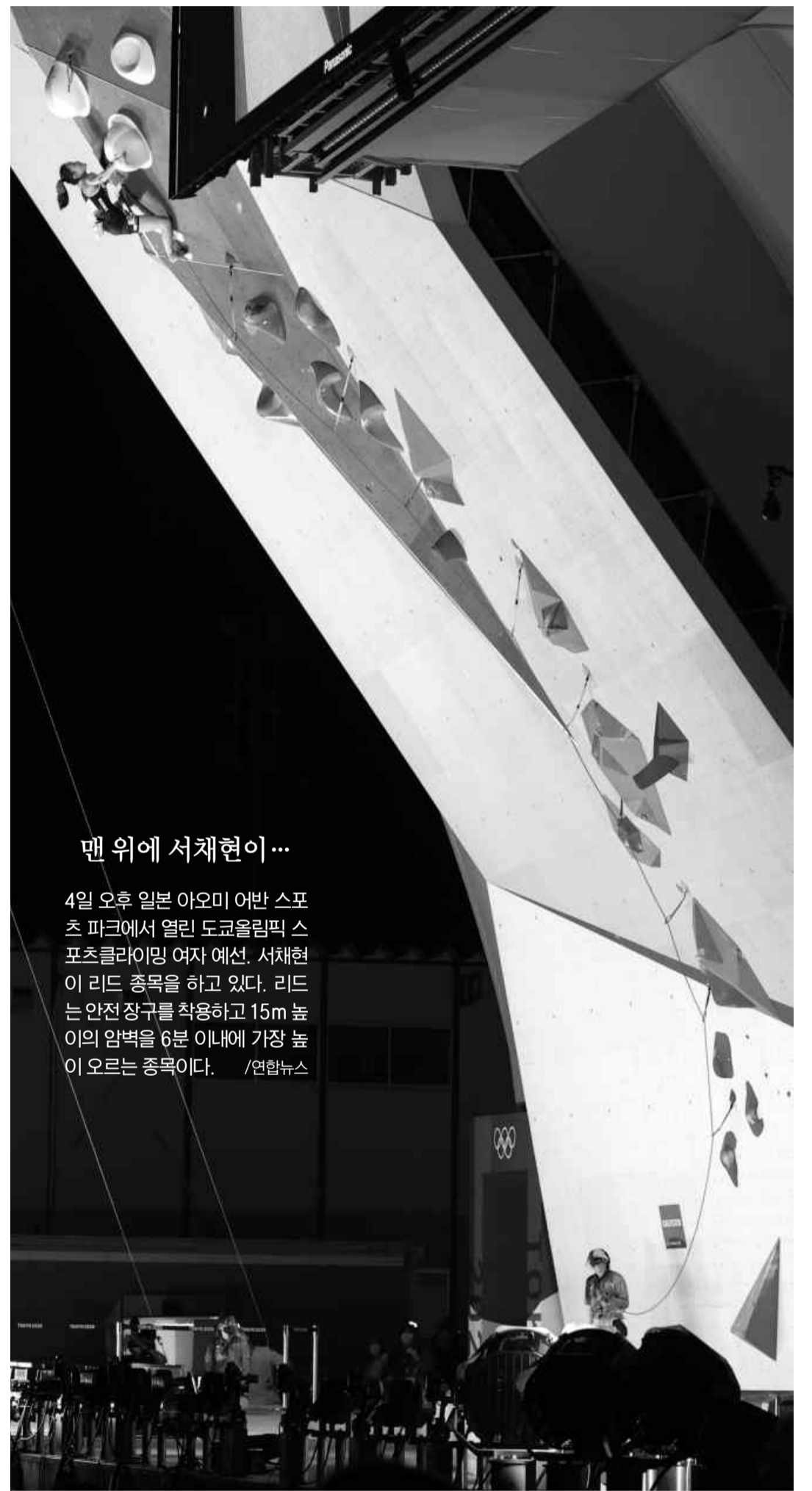
18세 서채현 오늘 메달 향해 오른다

예선 종합 2위로 결선행 스포츠키클라이밍 1호 메달 도전

'제2의 김지안' 서채현(18·신정고)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스포츠키클라이밍의 '1호 메달리스트'에 도전한다. 서채현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의 아오미 어반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키클라이밍 여자 콤비안 예선에서 최종 순위 2위로 결선에 안착했다. 6일 열리는 결선에서는 서채현을 포함한 예선 상위 8명이 메달 경쟁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서 첫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서채현은 스피드 17위, 볼더링 5위, 리드 1위로 세 개 순위를 골라 합계 85점을 기록했다. 서채현은 첫 번째 종목 스피드에서 17위

(10.01초)로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서채현은 두 번째 볼더링에서 '2T4z 5'의 기록으로 5위를 기록하면서 중간 순위를 10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서채현은 4개 가운데 1, 2번 코스에서는 가뿐히 완주했으나, 3, 4번은 중간 홀드까지만 성공해 최종 '2T4z 5'를 기록했다. 꼭대기 홀드(돌출부)인 '톱'(top)을 2개 성공했고, 가운데 홀드인 '존'(zone)은 4번 찍었다는 의미다. '5'는 톱과 존을 각각 5번씩 시도했다는 의미다. 서채현은 자신의 주 종목이자 마지막 종목인 리드에서 '명불허전'의 실력을 발휘하며 결선에 안착했다. 서채현은 '완동' 지점 바로 턱밑인 홀드 40개를 오르며 리드 1위를 기록, 최종 순위가 17→10→2위로 단숨에 뛰었다. 리드 2위 예시가 필츠(25·오스트리아)의 홀드 기록이 33개였다는 점을 고려하

면,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뽐낸 셈이다. 이날 예선 1위는 슬로베니아의 '여제' 야나 가르브렌트(22·슬로베니아·56점)가 차지했으며, 결선 진출자 8명 가운데 서채현은 최연소이자 유일한 10대로, 시상대에 오르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진기록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맨 위에 서채현이...

4일 오후 일본 아오미 어반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스포츠키클라이밍 여자 예선, 서채현이 리드 종목을 하고 있다. 리드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15m 높이의 암벽을 6분 이내에 가장 높이 오르는 종목이다. /연합뉴스

광주FC 8일 서울전...전방압박·역습으로 승부

전남은 광양서 대전과 한판 승부

광주FC가 전방 압박과 역습으로 서울전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오는 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1 2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강원FC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승리를 신고했지만, 지난 22라운드 성남FC와의 홈경기에서는 득점에 실패하며 0-0으로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승리는 어렵지만 광주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승점을 쌓아가고 있다. 광주는 서울전 승리를 통해 무패행진을 잇겠다는 각오다. 사령탑이 자리를 못바꾸면서 두 팀은 올 시즌 새로운 라이벌이 됐다. 지난 시즌 서울 감독대행을 맡았던 김호영 감독과 함께 서울 원클럽맨이었던 김원식이 주장으로 올 시즌 광주를 이끌고 있다. 서울에는 광주를 지휘했던 박진섭 감독과 MVP 이상호가 있다. 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여름도 제주에서 서울로 팀을 바꿨다. 잘 아는 이들의 세 번째 맞대결. 올 시즌 전적은 1무 1패로 광주가 뒤져있지만 매 경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특히 6월 19일 광주에서 전개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은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이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나온 김종우의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1-1 무승부를 만들었다. 실축 뒤 상대 골키퍼 양한빈이 키를 차기 전 먼저 움직였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광주에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김종우가 그대로 키커로 나서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는 동점골을 장식했다. 광주는 이 경기에서 프로 첫 선발 출장에 나섰던 허을을 앞세워 정면 승부에 나선다. 서울을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고졸 2년 차 허을은 이후 두 경기를 더 치르면서 빠른 성장세로 기대감을 키웠다. 여기에 엄지성은 물론 헤이스, 이순민, 김원식, 이한도, 알렉스도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장점인 전방 압박과 많은 활동량 그리고 빠른 공격 전개로 신 라이벌전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는 '여계인 1997'을 외치며 8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한다. 이날 두 팀은 레드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영광재현에 나선다. 전남은 FA컵 우승, 라피도컵 준우승, 아디다스 컵 준우승, 프로스펙스컵 3위 등 최고의 성적을 냈던 1997년 유니폼을 모티브로 한 레드 유니폼을 준비했다. 추억의 유니폼을 입은 전남이 승리의 추억까지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운드에 서는 안산 11일 프로야구 시구

한국하게 올림픽 첫 3관왕에 빛나는 안산(20·광주여대)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른다. 안산은 오는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하고 광주여대에 재학 중인 안산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혼성전을 시작으로 여자 단체전 9연패를 합작하고, 개인전 금메달까지 차지하면서 3관왕에 등극했다. 안산은 이날 20번이 마킹된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금빛 시구'를 하며 KIA 선수단 승리를 기원하게 된다. 안산의 어머니 구명순 씨는 시타자로 타석에 선다. 안산의 시구 지도는 야구올림픽대표팀에서 활약한 '루키' 이의리(19)가 맡을 예정이다. 한편 KIA는 '3회 연속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시구자 초청'이라는 이색 기록을 작성하게 됐다.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오른 기보배가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았고, 2016년 리우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기보배와 최미선이 KIA 시구자로 나섰다. 기보배와 최미선은 광주여대 출신으로 현재는 각각 광주시청과 순천시청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3관	블랙 위도우, 더 그레이트 쇼크
4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보스 베이비 2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7관 씨네캐슬	방법: 재차의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8관 씨네캐슬	정글 크루즈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